

痞證의 概念과 病因, 病機 및 治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李鳳雨·金炳卓*

I. 緒論

痞證이란 胸腹間의 氣機가 阻塞不舒하는 一種의 自覺症狀으로 心下胃脘部位가 滯塞 滿悶하며 按하면 柔軟不硬한 것을 말한다¹⁾.

痞證에 대한 最初의 記載는 《黃帝內經》으로 <素問 六元正紀大論>²⁾에서 “痞堅, 腹滿”이라고 言及되었으나 이는 通常의 言及되고 있는 痞證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內容이 貧弱하며, 그 後 張³⁾이 처음으로 “心下滿而硬痛者, 此爲結胸也, 但滿而不痛者, 此爲痞”라 하여 痞證을 定義한 以來, 痞氣, 胸痞, 胸中痞硬, 心下痞, 心下痞硬, 痞滿 등으로 痞證을 表現하였고⁴⁻⁶⁾, 病機로는 劉⁷⁾가 氣機의 上下升降失調를, 郭⁸⁾이 胃失和降 등을 言及하였는데 現代醫學의 으로 痞證은 胃, 十二指腸을 中心으로 하는 消化器系 疾患과 關聯된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⁹⁾.

이와 같이 痞證이 韓方臨床에 있어 常見되는 症狀임에도 不拘하고 痞證에 관하여 明確히 整理된 文獻은 많지 않다.

이에 著者는 痞證의 概念과 病因, 病機 및 治法에 대하여 歷代文獻을 綜合的으로 整理하여 比較考察하였던 結果 얻은 바가 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 黃帝內經 >¹⁰⁾

痞堅腹滿

< 仲景全書 >¹¹⁾

病發于陰而反下之, 因作痞也

心下滿而硬痛者, 此爲結胸也, 但滿而不痛者, 此爲痞, 柴胡不中與之, 宜半夏瀉心湯

脈浮而緊而復下之, 緊反入裏則作痞

太陽病, 醫發汗, 遂發熱, 惡寒因復下之心下痞

傷寒大下後, 復發汗心下痞

心下痞, 按之濡, 其脈關上浮者, 大黃黃連瀉心湯主之

心下痞而復惡寒, 汗出者, 附子瀉心湯主之

傷寒汗出解之後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噦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痢者, 生薑瀉心湯

心煩不得安, 醫見心下痞……但以胃中虛, 客氣上逆, 故便硬也, 甘草瀉心湯主之

< 諸病源候論 >¹²⁾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夫八痞者，營衛不和，陰陽隔絕，而風邪外入與衛氣相搏，血氣壅塞，不通而成痞也，痞者塞也，言府藏痞塞不宜通也，由憂恚氣積或墜墮，內損所致其湯熨鍼石，別有正方，補養宣導
〈外臺秘要〉¹³⁾

心中痞堅，留氣結於胸中，胸滿脇下逆氣搶心，枳實湯
〈三因極一病證方論〉¹⁴⁾

胸痞證者，胃中不和，心下堅硬，乾嘔，惡寒汗出，噫氣不除，傷寒身冷，醫反下之遂成胸痞
枳實理中圓：治傷寒乃諸吐利後，胸痞欲絕，膈高起急痛，手不得近

桔梗枳殼湯：治中寒氣痞，胸滿欲死

三黃湯：治傷陰證，下之太早，致心下痞，按之軟，其脈關上浮者主之

半夏瀉心湯：治心下痞滿而不痛者

〈素問玄機原病式〉¹⁵⁾

痞與痞同，不通泰也

精神營衛，血氣津液，出入流行之紋理，閉塞而爲痞也

〈丹溪心法〉¹⁶⁾

痞者有食積兼濕

心下痞，須用枳實，炒黃連

氣實之人而，心下痞者，宜枳實，黃連，青皮，陳皮，枳角

稟受素弱，轉運不調，飲食不化而心下痞者，宜白朮，山查，神曲，麥芽，陳皮

肥人心下痞者，乃是實痰，宜蒼朮，半夏，砂仁，茯苓，滑石

瘦人心下痞者，乃是鬱熱在中焦，宜枳實，黃連，葛根，升麻

食後感寒，飲食不化，心下痞，宜藿香，草豆蔻，吳茱萸，砂仁

痰挾血成窠囊，用桃仁，紅花，香附，大黃之類

痞者與痞同，不通泰也，由陰伏陽蓄，氣與血不運而成處心下位中央，膈滿痞塞者，皆土之病而與脹滿，有輕重之分，痞則內覺痞悶而外無脹急之形者，是痞也

有中氣虛弱，不能運化精微爲痞

有飲食痰積，不能旋化鬱而作痞

有濕熱太甚，土來心下而爲痞

〈醫學正傳〉¹⁷⁾

痞滿與脹滿不同，脹滿內脹而外亦形，痞則自覺痞悶而外無脹急之形也

〈景岳全書〉¹⁸⁾

痞者，痞塞不通之謂，滿者脹滿不行之謂

凡有邪氣滯而痞者，實痞也。無物無滯而痞者，虛痞也

實痞實滿者，可散可消，虛痞虛滿者，非大加溫補不可

〈證治準繩〉¹⁹⁾

因而怫鬱壅塞，塞不通爲痞者，火與濕也

〈萬病回春〉²⁰⁾

夫痞滿者，非痞塊之痞也，乃胸腹飽悶而不舒脹也，有氣虛中滿，有血虛中滿，有食積中滿，有脾泄中滿，有痰膈中滿，皆是七情內傷，六淫外侵，或醉飢餓失節，房勞過度則脾土虛而受傷轉輸之官失職，胃受水穀不能運化，故陽自升而陰自降而成天地不交之痞，不通泰也

痞者，心下滿而不能食也

調養脾胃，使心肺之陽下降，肝腎之陰上升，而成天地交泰，是無病也

〈醫學入門〉²¹⁾

痞與痞卦義同，精神氣血，出入流行之紋理閉密而爲心下痞塞，按之不痛

外感邪氣，自肌表傳至胸膈爲半表裏證，宜和解，或已經下胸滿而痛者爲結胸，不痛者爲痞滿雜病食積下之太過，或誤下則脾胃之陰頓亡，以致胸中至高之氣，乘虛下陷，心肺分野，其所蓄之邪，宜理脾胃

內傷勞役，濁氣犯上，清氣下陷，虛痞

瘀血結成窠囊而心下痞

〈醫宗金鑑〉²²⁾

陽證痞硬爲熱痞，大黃黃連瀉心寧

汗出惡寒寒熱痞，附子瀉心兩收功

誤下少陽發熱嘔痞滿，半夏瀉心能

虛熱水氣痞下利，心煩乾嘔腹雷鳴，虛熱水氣生薑瀉

痞急氣逆甘草靈

傷寒下早則成痞硬

痞悶不宣，氣壅塞 - 若夫痞者，痞悶不通，氣道壅塞之謂也

〈聖濟總錄〉²³⁾

傷寒病發於陰而醫誤下之，邪及入裏，胃中虛，客氣上逆，心下滿不痛，按之不堅，此爲痞也

〈醫方集解〉²⁴⁾

大承氣湯：痞滿燥實堅，全見者，爲當下

按之硬痛者爲結胸，硬而不痛者爲痞氣

木香檳榔丸：治胸腹積滯，痞滿結痛，胸腹痞滿瀉痢

痞氣丸：治脾積在于胃脘

胸悶不食爲痞，胸腹膨脹爲滿

按痞病由陰伏陽蓄，氣血不運而成，處心下，位中央，填塞痞滿，皆土病也

痞惟內覺滿悶

前人皆指誤下所致，蓋傷寒之病，由於誤下，則裏氣虛，表邪乘虛入於心下，若雜病亦有氣虛衰，不能運化精微而成痞

有飲食痰積，不能旋化而成痞

有濕熱太甚上乘心下而成痞

〈臨證指南醫案〉²⁵⁾

痞悶都屬氣分之鬱也

暑濕熱氣內伏，因勞倦，正氣泄越而發，既非暴受風寒，發散取汗，徒傷陽氣

胸痞不饑，熱不止，舌白而渴，此暑邪未盡

時令之濕，與水穀相併，氣阻不行，欲作痞結

胃寒湧涎中痞

因驚而得，邪遂入肝

脈澁脘痞不饑，口乾有痰，當清理上焦

〈血證論〉²⁶⁾

地須水升火降，斯爲既濟之形，設上火下水阻於中宮，遂成天地痞象，故名曰痞，血家火浮於上，與水不交，往往見痞滿之象，治心下痞滿之證，用瀉心湯以瀉火，用十棗湯以瀉水，甘草瀉心湯，生薑瀉心湯，水火兼瀉，五苓散解水結，柴胡湯解火結

〈傷寒指掌〉²⁷⁾

傷寒病發於陰，下之太早，則成痞鞭

表邪乘虛入裏而成

按之不痛者爲痞滿屬虛邪

傷寒誤治成痞，五瀉心已盡

熱痰內閉也…宜開之，宜之

暑濕伏邪，癡滯胸中也，宜清疏中宮

暑邪阻於氣分也……以清氣分之熱

濕邪阻於氣分也……法宜開泄，用二陳湯

< 醫編 >²⁸⁾

痞者，痞塞不開，滿者，滿悶不行也

痞滿但內覺滿悶而外無脹急之形也

皆由中氣不運，而所以致不運者，則或寒而癡閉，或熱而膜脹，或食滯痰停，或氣結怒鬱，或脾濕不化，或血瘀不行，皆能致之

< 醫學摘粹 >²⁹⁾

傷寒下早則成痞滿

陽證心下痞鞭者，爲熱痞，宜大黃黃連瀉心湯

陽證汗出惡寒者，爲寒熱痞，宜附子瀉心湯

誤下少陽，發熱而嘔，心下痞滿者，爲嘔逆痞，宜半夏瀉心湯

陽證誤下，心下痞鞭下利，心煩乾嘔，腹中雷鳴，脇下有水氣，至小便不利者，爲虛熱水氣之痞，宜生薑瀉心湯

若有是證，脇下無水氣，其痞急益甚者，爲虛熱欬氣上逆之痞，宜甘草瀉心湯

< 傷寒太白 >³⁰⁾

痞滿致病，同於結胸，均是表邪下早變症，均是表邪內陷心胸，惟以痛者爲結胸，但滿不痛者爲痞滿

治有陷胸瀉心輕重之別，按諸瀉心湯，皆寒藥以攻痞

心下肋脇痞滿，仲景用小柴胡湯，陶氏以枳桔湯合治之，重者以小柴胡湯合小陷胸湯

< 中醫辨證學 >³¹⁾

痞，是病人自覺心下滿悶痞塞不痛的一種證候

按之心下軟者，爲氣痞，按之較硬者爲痞硬，亦稱寒熱錯雜之痞

氣痞：本證因誤下而成心下痞

痞硬：脾胃不和致痞，胃虛水飲食滯痞，胃虛氣逆致痞，胃虛痰阻氣逆痞，

< 中醫學問答 >³²⁾

發病機理有兩種：一爲表證誤下，邪熱內陷，結于中焦，一爲脾胃素虛，邪熱乘虛內陷，二者都能導致中焦升降失職，氣機痞塞

Ⅲ. 考 察

痞證의 概念에 대한 歷代醫家說에 대하여 살펴보면 痞에 대한 最初의 言及은 《黃帝內經》으로 <素問 六元正紀大論>³³⁾에서 “痞堅腹滿”라고 하였으나 이는 痞證의 概念에 대하여 言及한 것으로 보기에는 內容이 貧弱하다. 그 後 張³⁴⁾은 痞를 結胸과 區分하면서 心下가 滿하나 疼痛이 없는 것이라고 痞證을 定義하였고, 巢³⁵⁾는 臟腑가 痞塞하여 不通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朱 登^{36,37)}은 內部에서는 痞悶한 感을 느끼지만 外部로는 形體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³⁸⁾은 痞와 滿을 區分하면서 痞는 痞塞不通을 말한 것이고 滿은 脹滿不行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龔³⁹⁾은 心下滿하면서 不能食하는 것으

로痞塊의痞와는 다르며痞滿이란胸腹이飽悶하며不舒暢한 것이라고 하였고,李⁴⁰⁾는痞는痞卦와 같은 것으로心下가痞塞하나按하여도不痛한 것이라고 하였다.吳⁴¹⁾등은痞란痞悶不通하며氣道가壅塞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으며,王⁴²⁾은胸悶不食한 것은痞요胸腹膨脹한 것은滿이라고 하여痞와滿을區分하였고,何⁴³⁾는痞는痞塞不開한 것이고滿은滿悶不行한 것이라고 하였으며,劉⁴⁴⁾등은病人이心下가滿悶하고痞塞한感を 느끼나不痛한 것이라고 하였다.以上에서言及된痞證의概念은 다음表와 같다.(圖表 1)

< 圖表 1 > 痞證의 概念

文 獻	主 要 內 容
黃 帝 內 經	痞堅腹滿
仲 景 全 書	心下滿而不痛
諸 病 源 候 論	府藏痞塞不宣通
素問玄機原病式	痞與痞同,不通泰也
丹 溪 心 法	痞者與痞同,不通泰也
醫 學 正 傳	自覺痞悶而外無脹急之形
景 岳 全 書	痞者,痞塞不通. 滿者,脹滿不行
萬 病 回 春	心下滿而不能食. 痞滿者,非痞塊之痞也,乃胸腹飽悶而不舒暢
醫 學 入 門	心下痞塞,按之不痛
醫 宗 金 鑑	痞悶不宣,氣壅塞
醫 方 集 解	胸悶不食爲痞,胸腹膨脹爲滿. 痞惟內覺滿悶. 硬而不痛
傷 寒 指 掌	按之不痛
醫 碁	痞者,痞塞不開. 滿者,滿悶不行. 痞滿但內覺滿悶而外無脹急之形
傷 寒 大 白	心下滿而不痛
中 醫 辨 證 學	自覺心下滿悶痞塞不痛

歷代文獻에言及된痞證의概念을綜合하여 보면張仲景을 비롯한 많은醫家들은痞證은心下가滿悶하나不痛하는 것이라고 한反面에巢元方은臟腑가痞塞하여不通한 것이라고 하였으며,朱丹溪 등은痞證과脹滿을區別하면서痞證을內部에서는痞悶하는感を 느끼지만外部로는形體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龔廷賢은胸腹이飽悶하여

舒暢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고, 吳謙은 痞悶不通하며 氣道가 不通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王詡庵은 痞와 滿을 區分하면서 胸悶不食한 것은 痞이며 胸腹膨脹한 것은 滿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痞證의 概念을 綜合하면 痞證은 全體的으로 痞와 滿을 包含하고 있으며 心下의 胃脘部位가 滿悶하지만 痛症은 없는 것을 말하며 脹滿과는 區分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痞證의 病因과 病機에 대한 歷代醫家說을 살펴보면 張 등^{45, 46)}은 傷寒에 汗法을 用하여야 되는데 도리어 下法을 用하므로써 發生하거나 傷寒病에 大下한 後에 다시 發汗하면 發生한다고 하였고, 巢⁴⁷⁾는 모든 痞는 營衛가 不和하고 陰陽隔絶하며 風邪가 外入하여 衛氣와 相搏하면 血氣가 壅塞하여 不通하므로 痞證이 發生한다고 하면서 그 病因으로는 憂悲氣積이나 墜墮 및 內傷을 言及하였다. 王⁴⁸⁾은 氣가 胸中에 結하여 發生한다고 하였고, 劉⁴⁹⁾는 精, 神, 營, 衛, 血, 氣, 津, 液 등의 生命物質이 正常的으로 運行하는 通路가 阻滯되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朱⁵⁰⁾는 陰伏陽蓄하여 氣와 血이 運行되지 못하면 心下中央部位에 痞가 發生한다고 하였고 이 外에도 食積에 濕을 兼하고 中氣가 虛弱하여 精微를 運化하지 못하여, 飲食痰積으로 旋化하지 못하여, 濕熱太甚으로 土來心下하여 痞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張⁵¹⁾은 實痞와 虛痞를 區分하면서 實痞는 邪氣가 鬱한 것이고 虛痞는 無物無礙한 것이라고 하였고, 王⁵²⁾은 火와 濕을 原因으로 提示하였으며, 龔⁵³⁾은 氣虛, 血虛, 食積, 脾泄, 痰膈中滿을 言及하면서 七情內傷, 六淫外侵, 醉飢餓失節 및 房勞過度로 脾가 虛하여 轉輸하는 機能을 失하여 胃가 水穀의 運化를 하지 못하므로 發生한다고 하였다. 李⁵⁴⁾는 精神氣血과 같은 生命物質이 出入하는 紋理가 閉密하여 發生하고 雜病食積에 下法을 太過하였거나 傷寒에 立지기 下하면 脾胃의 陰이 損傷하여 發生하며 內傷勞役, 瘀血 등으로 痞證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趙⁵⁵⁾은 傷寒에 病이 陰에서 發하였는데 醫師가 誤下하면 邪氣가 裏에 入하여 胃가 虛하여지고 客氣가 上逆하여 發病한다고 하였고, 王⁵⁶⁾은 醫師가 誤下하면 裏氣가 虛하여지고 表邪가 乘虛하여 心下에 入하거나 飲食痰積하여 旋化하지 못하거나 濕熱太甚하여 心下로 上乘하면 發病한다고 하였다. 葉⁵⁷⁾은 痞悶은 모두 氣分이 鬱한 것으로 暑濕熱氣가 內伏한데 勞倦하면 正氣가 泄越하여 發한다고 하였으며 胃寒이나 驚에 의해서도 發한다고 하였으며, 唐⁵⁸⁾은 水火가 中宮에 阻하여 火水不交하므로 發한다고 하였고, 吳⁵⁹⁾는 傷寒病이 陰에서 發하였는데 下法을 立직 用하게 되면 表邪가 乘虛하여 裏에 入하므로 發한다고 하였다. 何⁶⁰⁾는 中氣不運하여 發하는데 中氣를 不運케 하는 要因으로 寒의 凝滯, 熱의 脹脹, 食滯痰停, 氣結怒鬱, 脾濕不化, 血瘀不行 등을 言及하였고, 劉⁶¹⁾은 氣痞와 痞硬으로 區分하면서 氣痞는 誤下로, 痞硬은 脾胃不和, 胃虛水飲食滯, 胃虛氣逆, 胃虛痰阻氣逆 등으로 發한다고 하였다. 楊⁶²⁾은 痞證의 病機를 表證을 誤下하면 邪熱이 內陷하여 中焦에 結하여 發生하거나 혹은 脾胃가 本來 虛한데 邪熱이 虛를 틈타 內陷하여 發生하는데 이들은 모두 中焦의 升降機能을 失調케 하여 氣機가 痞塞한 때문이라고 要約하였다. 以上에서 言及된 痞證의 病因과 病機는 다음 表와 같다. (圖表 2)

< 圖表 2 > 痞證의 病因 및 病機

文 獻	主 要 內 容
仲景全書	病發于陰而反下之. 傷寒大下後, 復發汗
諸病源候論	營衛不和, 陰陽隔絶, 而風邪外入與衛氣相搏, 血氣壅塞, 不通而成痞

	憂悲氣積或墜墮, 內傷所致
外臺秘要	氣結於胸中
三因極一病證方論	醫反下之
素問玄機原病式	精神營衛, 血氣津液, 出入流行之紋理, 閉塞而為痞
丹溪心法	食積兼濕, 稟受素弱, 轉運不調, 飲食不化, 實痰鬱熱在中焦, 痰挾血瘀, 中氣虛弱, 不能運化精微, 飲食痰積, 不能旋化鬱而作痞, 濕熱太甚, 土來心下陰伏陽蓄, 氣與血不運而成
景岳全書	邪氣鬱滯痞者, 實痞, 無物無滯而痞者, 虛痞
證治準繩	拂鬱壅塞, 塞不通為痞者, 火與濕
萬病回春	氣虛, 血虛, 食積, 脾泄, 痰膈, 七情內傷, 六淫外侵, 或醉飢失節, 房勞過度則脾土虛而受傷轉輸之官失職, 胃受水穀不能運化, 故陽自升而陰自降而成天地不交之痞
醫學入門	精神氣血, 出入流行之紋理閉密, 雜病食積下之太過, 或誤下則脾胃之陰頓亡, 內傷勞役, 濁氣犯上, 清氣下陷, 瘀血結成
醫宗金鑑	傷寒下早
聖濟總錄	傷寒病發於陰而醫誤下之, 邪及入裏, 胃中虛, 客氣上逆
醫方集解	陰伏陽蓄, 氣血不運, 飲食痰積, 不能旋化, 濕熱太甚, 上乘心下
臨證指南醫案	氣分之鬱, 暑濕熱氣內伏, 因勞倦, 正氣泄越而發, 胃寒, 驚
血證論	上火下水阻於中宮, 水火不交
傷寒指掌	病發於陰, 下之太早, 表邪乘虛入裏
醫編	中氣不運, 寒, 熱, 食滯痰停, 氣結怒鬱, 脾濕不化, 血瘀不行
醫學摘粹	傷寒下早
中醫辨證學	氣痞: 誤下而成, 痞硬: 脾胃不和, 胃虛水飲食滯, 胃虛氣逆, 胃虛痰阻氣逆
中醫學問答	表證誤下, 邪熱內陷, 結于中焦, 脾胃素虛, 邪熱乘虛內陷, 二者都能中焦升降失職, 氣機痞塞

歷代文獻에서 言及된 痞證의 病因 및 病機를 綜合하여 보면 病因으로는 傷寒病을 誤下한 경우가 가장 많이 言及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食積, 濕熱太甚, 脾胃虛弱, 內傷勞役, 瘀血, 痰積 등이 言及되었다. 病機로는 誤下하면 表의 邪氣가 裏로 入하여 胃虛하고 客氣가 上逆하므로 發病하거나 食積, 濕熱太甚, 脾胃虛弱, 內傷勞役, 瘀血 및 痰積 등으로 脾胃가 虛하여지면 發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病機들은 結局 胃의 和降機能이 失調케 되어 痞證이 發生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痞證의 治法과 治方에 관하여 살펴보면 治法으로는 巢⁶³⁾가 補養宣導法을, 張⁶⁴⁾이 實者는 散, 消法을, 虛者는 溫補法을, 龔⁶⁵⁾이 調養脾胃法을, 李⁶⁶⁾가 理脾胃法을, 葉⁶⁷⁾이 清理上焦法을, 唐⁶⁸⁾이 瀉火, 瀉水, 瀉水火, 解火結法을, 吳⁶⁹⁾가 開, 宣, 開泄, 清疏中宮, 清氣分熱法을 治法으로 提示하였으며, 治方으로는 張⁷⁰⁾이 半夏瀉心湯,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生薑瀉心湯 및 甘草瀉心湯 등의 五個瀉心湯을 治方으로 提示하였고, 王⁷¹⁾이 枳實湯을, 陳⁷²⁾이 枳實理中圓, 桔梗枳殼湯, 三黃湯 및 半夏瀉心湯을, 吳⁷³⁾은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등의 五個瀉心湯을, 王⁷⁴⁾이 大承氣湯, 痞氣丸, 木香檳榔丸을, 唐⁷⁵⁾이 瀉心湯, 十棗湯, 五苓散, 柴胡湯을, 吳⁷⁶⁾가 五個瀉心湯, 二陳湯을, 慶⁷⁷⁾이 五個瀉心湯을, 秦⁷⁸⁾이 小柴胡湯, 枳桔湯, 小陷胸湯을 治方으로 提示하였다. 以上에서 言及된 痞證의 治法과 治方은 다음 表와 같다. (圖表 3)

< 圖表 3 > 痞證의 治法 및 治方

文 獻	主 要 內 容
仲 景 全 書	半夏瀉心湯,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甘草瀉心湯 生薑瀉心湯
諸 病 源 候 論	補養宣導
外 臺 秘 要	枳實湯
三因極一病證方論	枳實理中圓, 桔梗枳殼湯, 三黃湯, 半夏瀉心湯
景 岳 全 書	實痞加散加消, 虛痞溫補
萬 病 回 春	調養脾胃
醫 學 入 門	理脾胃
醫 宗 金 鑑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醫 方 集 解	大承氣湯, 木香檳榔丸, 痞氣丸
臨證指南醫案	清理上焦
血 證 論	瀉火, 瀉水, 水火兼瀉, 散解水結, 解火結 瀉心湯, 十棗湯, 甘草瀉心湯, 生薑瀉心湯, 五苓散, 柴胡湯
傷 寒 指 掌	開之宣之, 清疏中宮, 清氣分熱, 開泄. 五個瀉心湯, 二陳湯

醫學摘粹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歷代文獻에서 言及된 痞證의 治療에 관한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諸文獻에 言及된 治法은 補養宣導, 調養脾胃, 溫補, 瀉火, 瀉水, 開泄, 散, 消, 清熱法 등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治方으로는 五個瀉心湯類가 가장 많이 活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結論

痞證의 概念과 病因, 病機 및 治法에 관하여 歷代文獻을 綜合적으로 整理하여 比較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痞證이란 痞와 滿을 包括하고 있는 概念으로 心下의 胃脘部位가 滿悶 하지만 痛症은 없는 것을 말한다.
2. 痞證의 病因은 傷寒病을 誤下하였거나 食積, 濕熱太甚, 脾胃虛弱, 內傷勞役, 瘀血, 痰積 등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痞證의 病機는 胃의 和降機能이 失調로 要約할 수 있었다.
4. 痞證의 治法으로는 주로 補養宣導, 調養脾胃, 溫補, 瀉火, 瀉水, 開泄, 散, 消, 清熱法 등의 治法이 活用되었다.
5. 痞證의 治方으로는 五個瀉心湯類가 가장 많이 活用되었다.

後 註

1. 楊醫亞 外 :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224.
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 161.
3. 張仲景 : 仲景全書, 서울, 裕昌德書店, 1960, p. 189.
4. 李 梴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379.
5. 陳 言 :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54.
6. 趙 佶 外 :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卷上, p. 579.
7. 劉渡舟 : 傷寒論通俗講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 52.
8. 郭子光, 馮顯遜 : 傷寒論湯證新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 111.
9. 久保道德, 谿忠人 : 漢方醫藥學, 서울, 東南出版社, 1984, p. 249.
10. 洪元植 : 上揭書, p. 161.
11. 張仲景 : 上揭書, p. 176, pp. 189-193, p. 197.
12.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臺中, 昭人出版社, 年度未詳, 卷二十, pp. 14-15.

13. 王 焘 :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40.
14. 陳 言 : 上揭書, pp. 54-55.
15. 劉完素 : 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31.
16. 朱震亨 :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出版社, 1986, pp. 159-160.
17. 虞 搏 :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38.
18.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p. 435.
19. 王肯堂 : 證治準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卷一, p. 105.
20. 龔廷賢 :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5, 卷上, p. 167.
21. 李 梴 : 上揭書, pp. 379-380.
22. 吳 謙 外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卷中, p. 281, pp. 452-453.
23. 趙 佶 外 : 上揭書, p. 579.
24. 汪인庵 :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 77, 84, 90, 343.
25. 葉天士 : 臨證指南醫案, 香港, 商務印書館, 1976, pp. 237-242.
26. 唐容川 :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p. 116.
27. 吳坤安 :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卷三, pp. 14-16.
28. 何夢瑤 :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 123.
29. 慶云閣 : 醫學摘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p. 61-62.
30. 秦之楨 : 傷寒大白,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212-213.
31. 劉獻琳 外 : 東洋醫學叢書, 中醫辨證學, 서울, 一中社, 1990, 卷III, pp. 71-72.
32. 楊醫亞 外 : 上揭書, p. 224.
33. 洪元植 : 上揭書, p. 161.
34. 張仲景 : 上揭書, p. 189.
35. 巢元方 : 上揭書, pp. 14-15.
36. 朱丹溪 : 上揭書, p. 160.
37. 虞 搏 : 上揭書, p. 138.
38. 張景岳 : 上揭書, p. 435.
39. 龔廷賢 : 上揭書, p. 167.
40. 李 梴 : 上揭書, p. 379.
41. 吳 謙 外 : 上揭書, pp. 452-453.
42. 王詡庵 : 上揭書, p. 77.
43. 何夢瑤 : 上揭書, p. 123.
44. 劉獻琳 外 : 上揭書, p. 71.
45. 張仲景 : 上揭書, p. 176, 191.
46. 陳 言 : 上揭書, p. 54.
47. 巢元方 : 上揭書, pp. 14-15.
48. 王 焘 : 上揭書, p. 340.
49. 劉河間 : 上揭書, p. 131.
50. 朱丹溪 : 上揭書, p. 160.
51. 張景岳 : 上揭書, p. 435.
52. 王肯堂 : 上揭書, p. 105.
53. 龔廷賢 : 上揭書, p. 167.

54. 李 梴 : 上揭書, pp. 379-380.
55. 趙 佶 外 : 上揭書, 卷上, p. 579.
56. 王訥庵 : 上揭書, p. 343.
57. 葉天士 : 上揭書, pp. 237-239, p. 241.
58. 唐容川 : 上揭書, p. 116.
59. 吳坤安 : 上揭書, 卷三, p. 16.
60. 何夢瑤 : 上揭書, p. 123.
61. 劉獻琳 外 : 上揭書, pp. 71-72.
62. 楊醫亞 外 : 上揭書, p. 224.
63. 巢元方 : 上揭書, p. 15.
64. 張介賓 : 上揭書, p. 435.
65. 龔廷賢 : 上揭書, 卷上, p. 167.
66. 李 梴 : 上揭書, p. 379.
67. 葉天士 : 上揭書, p. 242.
68. 唐容川 : 上揭書, p. 116.
69. 吳坤安 : 上揭書, pp. 14-15.
70. 張仲景 : 上揭書, p. 189, pp. 191-193.
71. 王 燾 : 上揭書, p. 340.
72. 陳 言 : 上揭書, pp. 54-55.
73. 吳 謙 外 : 上揭書, 卷中, p. 281.
74. 王訥庵 : 上揭書, p. 77, 90, 343.
75. 唐容川 : 上揭書, p. 116.
76. 吳坤安 : 上揭書, pp. 14-15.
77. 慶云閣 : 上揭書, pp. 61-62.
78. 秦之楨 : 上揭書, p. 212.

參 考 文 獻

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2. 慶云閣 : 醫學摘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3. 龔廷賢 :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5.
4. 郭子光, 馮顯遜 : 傷寒論湯證新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5. 唐容川 :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6. 葉天士 : 臨證指南醫案, 香港, 商務印書館, 1976.
7.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臺中, 昭人出版社, 年度未詳.
8. 楊醫亞 外 :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9. 吳 謙 外 :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0. 吳坤安 :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11. 王肯堂 : 證治準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2. 王 燾 :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王詡庵 :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14. 虞搏 :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15. 劉渡舟 : 傷寒論通俗講話,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16. 劉完素 : 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7. 劉獻琳 外 : 東洋醫學叢書, 中醫辨證學, 서울, 一中社, 1990.
18. 李 梴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9.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20. 張仲景 : 仲景全書, 서울, 裕昌德書店, 1960.
21. 趙 佶 外 :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2. 朱震亨 :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出版社, 1986.
23. 陳 言 :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4. 秦之楨 : 傷寒大白,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5. 何夢瑤 :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6. 久保道德, 谿忠人 : 漢方醫藥學, 서울, 東南出版社, 1984.